

데스크 시각

박 치 경
현장부국장·사회부장

“조선대 이사님들, ‘쿨’하게 하시죠”

과정이었다. 그러나 조선대 이사회 관계자들이 헌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악몽’을 되씹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조선대는 1946년 7만20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선대학설립동지회’에 근거해 광주야간대학원으로 설립되었다가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그러나 조선대의 운영은 애초 설립정신에 크게 빛나기 지탄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다시 떠오른 관치의 악몽

조선대는 한국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1987~1988년 학내에서 일어났던 대학 개혁운동인 ‘1·8 항쟁’ 끝에 학교법인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파견하는 임시이사 체제로 넘어가 민립대학의 취지를 잊고 말았다.

이후 조선대는 2010년 임시이사 체제 22년 만에 정시이사 체제로 전환해 다시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올 초 사단이 떨어졌다. 이사들이 지난해 말과 올 3월 말 임기가 끝난지 반년이 지나도록 후임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한 실정에서 지루한 자리다툼 끝에 다시 ‘관치’(官治)를 겪게 될지도 모를 상태에 처한 것이다.

지방 최초 사학(私學)이자 한국 최초 민립대학(民立大學)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던 조선대의 개혁작업은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머리를 무겁게 한 매우 고통스런

교육부는 오는 30일까지 기존 이사진에서 2명을 교체하고, 1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통보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조선대 이사회의 개편이 미궁에 빠진 것은 이사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이사진들은 서로의 셀법만 밝히느라 문제 풀이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막상 교육부도 고심이 크다. 일단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지만 임시이사를 파견하더라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학, 구재단 측 등이 임시이사 추천 인원을 놓고 끊임없는 술자 싸움만 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급기야 개방이사 선임을 놓고 ‘맥주병 폭행’까지 벌여져 대학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마지막 선택에 生死 걸렸다

‘고장난 시계’와 같은 이사회 때문에 대학 행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교수단체와 학생회는 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

아 이사회가 다뤄야 할 각종 사안들이 장기 간 끌어 있는 상태다.

이사들의 이전 투구 때문에 조선대의 운영은 풍전등화다. 생사를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의 실정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밤그릇 다툼에만 열중하는 이사들은 도대체 어느 지역 사람들인가?

이사들 모두 입장으로는 대학발전과 개혁을 외치지만 자신의 행동이 학생과 시민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끼치고 있는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결같이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막는 이사들은 자신이 왜 그 같은 행태를 보이는지를 스스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요구를 밝히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정말 큰 일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30일 서울에서 ‘정의사 1명’ 선임을 위한 42차 정기이사회를 연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정의사 후보 2명 중 1명을 뽑는 자리다.

만일 이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임시체제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무한경쟁 속에 대학 경쟁력을 얼마나 추락할지도 걱정이다. 조선대 이사진은 지역민들이 조급이나마 안도할 수 있도록 ‘쿨’(Cool)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unipark@kwangju.co.kr

온펜칼럼

한옥에 눈뜨다

을 두는 세 칸이 기본을 이루었다. 이처럼 아담한 공간이지만 방문과 들판을 통하여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여 마음이 넉넉하고 평화로울 수 있었으리라.

내가 처음 담양의 소쇄원을 방문했을 때, 이조시대의 대표적 정원이라 들고 큰 기대를 하고 갔다. 주인이 거쳐했다는 3칸 기와집 앞쪽에 이보다 더 작은 기와집이 보였다.

뒤로는 산, 앞으로는 굽이치는 좁은 계곡을 보고 정원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기억이 새롭다. 우리 조상들은 소박한 건축물에 몸을 담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최대한 관조하고 누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최근에 읽은 박광수씨가 쓴 ‘한옥을 말한다(일진사)’는 수많은 전문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해 한옥의 매력에 끌리지 못하였다. 저자는 원목을 수입하는 일을 하다가 각국의 목조주택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목조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소박한 서민의 옛 살림집으로 우리는 초가삼면을 떠올린다. 한 칸은 사방 8자(가로 세로 각각 약 2.4m)로 둘이 늄기(이)에 알맞은 크기의 공간이다. 방 둘에 중앙마루나 부엌

설명한다.

한옥의 재료는 흙, 나무, 그리고 돌이다. 흙은 바닥과 벽, 그리고 기와 밑 지붕에 부토로 쓰였다. 흙은 실내의 훈탁한 공기를 정화시키고 원적외선을 내뿜으며 습기를 머금어 사람들의 피부와 폐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황토방이 아토피 등 피부 질환에 타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흙은 보온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 한옥이 겨울에는 뜨겁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나무는 한옥의 주 부재로써 대부분이 지붕 쪽에 위치한다. 과거에는 소나무나 느티나무가 쓰였으나 지금은 대부분 깊은 수입목을 쓴다. 기와지붕은 육중하면서도 날아갈 듯 떠들어진 곡선이 매력이다. 쳐마를 길게 빼서 기둥을 보호하고 비를 피하도록 설계되었다. 겨울에는 헛벌을 많이 받고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줄이고 바람이 잘 통하여 서늘하다. 기둥하부를 5푼(1.5cm)정도 오목하게 파고 소음이나 숨을 넣어 습기나 흙개미의 접근을 막기로 한다. 나무는 실

내구성을 만드는데도 필수품이다.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어 시집갈 때 장롱을 짜주었다.

구들은 한옥의 백미이다. 구들속의 뜨거움과 연기가 수막을 차단하고 습기를 제거하며 돌과 흙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은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또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어 밥을 하며 태고 낙은 불로 감자나 고구마를 구워먹고 재는 거름으로 쓰이니니보다 더 유용한 난방장치를 세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양옥’에 살면서 일본여자를 아내로 맞고 중국 요리를 먹는 ‘삶’을 최고로 여기던 시절은 옛말로 남았다.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한옥’에 살면서 다정다감한 한국여자를 아내로 맞고 건강에 좋은 한국 음식을 먹는 ‘삶’이 세상 뜻 남성들의 로망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힐링의 전당, 장성 치유의 숲으로!

역에 자라고, 그 중에서도 장성지역이 최대 편백나무 군락지로 손꼽힌다. 특히 축령산 일대의 편백나무 숲은 규모나 치유 효과 등 질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편백나무는 소나무나 다른 나무에 비해

피톤치드를 약 3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이 피톤치드가 콘크리트문화에 이숙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준다. 사람들이 숲에서 호흡을 할 때 체내에 흡수되어 뇌의 피질을 활성화시켜 심리·정신적 안정감과 편안함, 스트레스 감소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준다. 숲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발견되지 않는 것도 피톤치드가 알레르기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 숲에 산림치유 활동을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치유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해 ‘치유의 숲’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옛길 10.2km에 하늘길, 산소길, 숲내길, 건강숲길 등 테마별 치유숲길을 만들어 연령이나 치유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숲 속 곳곳에 산림치유필드, 전망대, 쉼터,

화시키는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산림치유 서비스 수혜자 100만 명을 목표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현재 4곳인 치유의 숲을 34개소로 늘리고, 산림 치유지도사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도 장성 치유의 숲을 찾는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산림치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숲 정비, 시설보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 치유의 숲 대표모델로서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숲이 치매 예방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심혈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적인 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중년기 접어들면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정기검진 못지않게 숲길걷기와 같은 꾸준한 운동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 가을에 장성 치유의 숲에서 피톤치드를 들풀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건강도 쟁여보면 어떨까.

아나운서들 생명보험 광고 참 불편하네요

요즘 TV광고 중에 생명보험 광고를 보면 칼만 만들었지 거의 협박처럼 들린다. 즉 당장 생명보험 광고에 들지 않으면 천지가 개벽하고 온 나라가 망하고 사람도 당장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 같은 뉘앙스로 광고를 한다.

듣는 시청자로서 TV를 보기가 여간 거북한 게 아니다. 문제는 너무나 익숙한 아나운서들이 그대로 믿고 공포감마저 느낀다. 얼마 전만 해도 생명보험 광고는 케이블 TV나 흠크위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시청률 높은 홍보시간대까지 점령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해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지만 이는 너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며, 소비자를 혐오하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월 2만원대로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증여·기획·지하철·전철·기차·버스·택시 등에 의한 사고일 때뿐이다. 대중교통이 아닌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1억원만 지급하고, 그 외의 사고로 사망한다면 5000만원만 지급할 뿐이다. 그런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한다.

거기다가 한 번 가입으로 보장은 80세까

지 받는다고 하지만 해마다 보험사가 생신을 해 주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1년으로 끝날 수도 있다. 또 보험사는 보험금을 2~3회 이상 청구하거나 혹은 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갱신을 중도에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은 좌다 승진 채 “자식들에게 기대지도 못 하는 처지에 어떻게 할거냐”면서 당장 가입하면 큰일날 것처럼 노인들을 현혹하는 생명보험 광고, 정말 양심껏 광고하고 영업해 주기 바란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社說

亞문화전당 운영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을 국가가 아닌 법인에 위탁을 전제로 하는 안을 확정해 그 결과가 초기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문화전당이 초기에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문화전당 운영을 법인이 맡도록 하는 ‘아시아문화전당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실상 정부안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재정확보를 통한 법 인화 수용 가능성에 언급되면서 문화전당 운영방식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시와 지역민들은 문화전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안은 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위탁 운영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초기에는 정부기관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에 투자해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건립의 목적과 열악한 지역의 제정 등을 고려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그에 곧 국립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문화전당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입법과정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화전당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의 현안이 아닌가.

광주은행 매각, 지역 환원에 더 비중 둬야

24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제안서 접수 결과, 광주·전남상공인연합, JB(전북은행)금융지주, BS(부산은행)금융지주, DGB(대구은행)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지구촌영농조합 등 모두 7곳이 참여했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광주상의 등이 주체가 돼 요구해온 지역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인수가 가능할 것인지 끊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광주은행 매각 조건으로 최고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에서의 비중, 자금조달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그만의 기대가 커진 것이다. 자금력이 온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광주·전남 상공인연합 등으로선 지역 기여도와 비중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민들이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것은 무엇보다 티은행에 인수될 경우 당장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고, 지역자본의 역할을 막아 주인이 돼야 하는 것이다.

無等鼓

1995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鯉魚臺) 국립관에서 있었던 이 야기다. 전날 장쩌민 중국 주석, 리펑 총리와 면담한 삼성 이승희 회장과 국내 언론사 베이징 주재 특파원 간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서 이 회장은 “우리 정치와 관료행정 수준으로는 21세기를 준비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의 현 수준을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비판적이다. 우리의 정치인은 4류 수준, 관료 행정은 3류 수준, 기업은 2류 수준이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 블라·베이징 발언’인데, 이 말은 전래고를 드고 발끈한 김영삼 정권을 달래기 위해 삼성이 진땀을 흘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정치를 하루로 보는 시각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미국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John Adams·1767 ~ 1848)는 “다른 모든 과학은 진보하고 있는데도 정치만은 옛날 그대로다. 지금도 3, 4000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한단했다.

▲홍행기 사회|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 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광고문의 062-227-9600
면접국내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면접 부 2200-649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12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체육부	